

2009 사회과 교육과정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일반사회교육 전공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2009 사회과교육과정

강운선
대구대학교

I. 문제인식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 총론이 2009년 12월 23일 발표되었다. 미래형 교육과정이라고도 불리워졌던 2009 개정교육과정 총론의 핵심 내용은 학년군, 교과군, 공통교육과정의 단축, 공통과정 단축으로 인한 교육내용의 통합, 고등학교 전 학년 선택교육과정 운영, 집중이수제, 교육내용 감축을 통한 교육 내용 적정화, 20% 범위에서 수업 시수의 탄력적 운영 등이다. 사회과에서도 총론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0년도에는 그와 같은 방향이 사회과교육의 본질과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지,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에 등에 관하여 사회과/도덕과 연구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총론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제안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것은 총론의 개정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과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총론교육과정과 교과교육과정이 동시에 개발해왔기 때문이다. 총론과 각론 교육과정의 개발로 인해 총론의 방향이 교과교육과정 개발에 충분히 반영되기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차를 두어 교육과정을 고시한 것은 이런 비판을 시정하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과 교육과정을 사례로 볼 때, 학년군, 교과군, 고등학교 전 학년 선택교육과정 운영, 집중이수제 등의 개정 방향이 각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상당 정도 반영되었으며, 20% 교육내용 축소도 사회과교육과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총론의 개정 방향을 반영하여 각론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던 그 '연원'은 상당 정도 성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성공이 사회과교육의 본질과 목표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성공이며, 기초능력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의 육성을 강조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에 비추어 볼 때에 어느 정도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2011년 8월 9일사회과 교육과정이 고시된 후에 교육과정에 담고 있는 교육내용이 창의적 인간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을 육성하기에 충분한 지에 대한 반성적으로 성찰할 여유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2013년도부터 적용되는 초중학교 공통교육과정과 2014년도부터 시작되는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서 개발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총론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살펴보고, 그 방향을 반영하여 개정된 2009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사회과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Ⅱ. 2009 교육과정 총론의 개정 방향과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적 인간상은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교육받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방하는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이라는 교육적 인간상 구현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총론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이 학교급별 목표와 교과별 목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학교 교육의 특징에 적합하게 선정된 인간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주요 특성(중학교)

인간상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자주인 (self-directed person)	창의인 (creative person)	문화인 (cultivated person)	세계인 (global-minded person)
핵심역량	지·덕·체의 고른 발달, 개성의 발휘, 진로 개척, 자기 주도성 등	기초능력 구비, 확산적 사고, 문제 해결능력, 독창성, 새로운 가치 창출 능력 등	다양한 문화적 소양,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 삶의 질 추구 등	의사소통능력, 세계 시민의식, 지구 공동체 문제 해결, 인류공영, 배려와 나눔 등
중학교 교육목표	가.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라.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은

<표 2>와 같다.

<표 2> 교육과정 구성 방침

-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나.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이수단위를 제시한다.
- 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
- 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다.
- 아.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는 <표 3>과 같다.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회과와 도덕과가 교과군으로 편성되었다.

<표 3>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제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기술가정)	체육	예술 (음악/미술)	영어	선택	창의적 체험활동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442	510 (역사 포함)	374	646	272	272	340	204	306	3,366

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최소 수업 시수’의 개념에서 벗어나 증감이 가능한 ‘기준 수업 시수’로 전환하여 교과와 교과 특성, 학생 집단의 상황에 적절하게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Ⅲ. 2009 사회과 교육과정, 무엇이 변화했는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연계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 따라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III장에서는 총론의 방향을 반영하여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무엇이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가 달라졌다.

1992년도에 고시된 6차 교육과정 이후로 사회과 교육과정은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왔다. 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도 6차 교육과정과 유사한 요소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성격'을 '목표'에 통합하여 구성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표 1 참조)과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교육과정 구성요소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총론과 각론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4> '사회' 과목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구분	2007 개정	2009 개정
구 성	1. 성격 2. 목표 3. 내용 가. 내용 체계 나. 영역별 내용 4. 교수·학습 방법 가. 교수·학습의 원칙 나. 교수·학습의 방법 5. 평가 가. 평가방향 나. 평가내용 다. 평가방법 라. 평가의 활용	1. 추구하는 인간상 2. 학교급별 교육 목표 3. 목표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가. 내용 체계 나. 영역 및 학습 내용 성취 기준 5. 교수·학습 방법 가. 교수·학습 계획 나. 교수·학습 방법 다. 교수·학습 자료 6. 평가 가. 평가 계획 나. 평가 목표와 내용 다. 평가 방법 라. 평가의 활용

2. 중등학교 '사회' 과목의 교육내용 체계가 달라졌다.

2009 총론 교육과정에서 개정 방향으로 강조한 학년군, 교과군, 공통과정 단축, 고등학교 전 과정의 선택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을 반영하여 중학교 '사회' 과목의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근거하여 중등 공통과정 '사회' 과목의 교육과정을 특징을 내용체계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7학년, 9학년, 10학년의 3개 학년으로 명시되어 교육 내용을 편성한 것과는 달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3학년으로 교육내용이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학년군의 방향을 반영한 결과이다.

둘째, 중등학교 공통과정에 편성되어 있던 교육내용(7, 9, 10학년)이 중학교 교육 내용(중학교 1~3학년)으로 통합되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등학교 전 과정이 선택 교육과정으로 전환되면서 공통과정이 단축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셋째, 2007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1) 중등학교 사회 과목과 2009 공통과정 중등학교 사회 과목에 편성되

어 있는 단원의 수(14개)는 동일하며, 단원명도 상당 정도로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성취기준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육내용을 통합하고 교육내용을 감축하도록 요구했던 총론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2007 사회 과목에서 정치과정과 헌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사회구조는 중학교에서 사회변동과 사회문제는 고등학교에서 학습하도록 편성하고 있으며, 경제학 영역과 관련하여 미시경제학은 중학교에서 거시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은 고등학교에서 학습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교육과정 개정으로 고등학생들이 학습했던 내용을 중학교 학생들이 학습하도록 교육내용의 편성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표 5> 중등학교 '사회' 과목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학 년	내용체계	영역	영역	내용체계	학 년
7	1**. 개인과 사회생활(6)*** 2. 문화의 이해와 창조(4) 3. 우리의 생활과 법(5) 4. 인권보호와 헌법(4)	사회구조 인류학 법학 일반 헌법	사회구조 문화인류학 사회변동	1.개인과 사회생활(3) 2.문화의 이해와 창조(3) 3.사회의 변동과 발전(3)	중 학 교 1 ~ 3
9 *	5. 정치생활과 민주주의(5) 6. 민주정치와 시민 참여(5) 7.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5) 8. 시장경제의 이해(5) 9. 일상생활과 경제 주체의 역할(5)	정치형태 정치과정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정치형태 정치과정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	4.정치 생활과 민주주의(3) 5.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3) 6.경제 생활의 이해(3) 7.시장 경제의 이해(3)	
10 *	10. 사회변동과 문화(5) 11.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5) 12. 정치과정과 참여민주주의(5) 13. 경제성장과 삶의 질(5) 14. 국제거래와 세계화(5)	사 회 변 동 / 사 회 문 제 / 문 화 인 류 학 헌법 정치과정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법학 일반 헌법 법/정치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국제정치학 사회문제	8.일상생활과 법(3) 9. 인권 보장과 법(3) 10.헌법과 국가 기관(3) 11.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3) 12.국제 경제와 세계화(3) 13.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3) 14.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3)	

* 2007 개정 교육과정 9학년과 10학년 내용은 2009년 3월에 부분 수정한 교육과정(교육과 학기술부 고시 제 2009 - 10호 [별책 7]) 을 대상으로 정리한 것임.

**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단원을 의미하는 숫자가 아니라 비교를 위하여 편의상 부여한 것임

*** 괄호 안의 숫자는 단원별 성취기준 수를 제시한 것임

다섯째, 중등학교 공통과정의 14개 단원을 구성한 내용 영역을 비교하면,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사회학(사회구조 1개 단원, 사회변동/사회문제 2/3 단원), 인류학(1/3 단원), 정치학(정치형태 1개 단원, 정치과정 2

1) 2007 개정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과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두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공통과정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이다.

개 단원), 법학(법학 일반 1개, 헌법 2개 단원), 경제학(미시 3개 단원, 거시 1개 단원, 국제경제 1개 단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사회학(사회구조 1개 단원, 사회변동 1개 단원, 사회문제 1개 단원), 인류학(1개 단원), 정치학(정치형태 1개 단원, 정치과정 1개 단원, 국가의 통치조직 1개 단원, 국제정치학 1개 단원), 법학(법학 일반 1개, 헌법 1개 단원), 경제학(미시 2개 단원, 거시 1개 단원, 국제경제 1개 단원)으로 구성된다. 사회학, 문화인류학, 정치학, 법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에 속하는 하위 영역의 단원의 수만을 평면 비교할 때에 경제학 영역의 단원이 축소되고, 사회학 영역의 단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여섯째, 내용의 구성에서 볼 때에 가장 큰 변화는 정치학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편성되어 있지 않던 국제정치 내용이 2009 중등학교 공통과정 사회 과목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법학 영역을 법학 일반과 헌법을 구성하는 국가의 통치조직과 국민의 기본권 영역을 두 개의 단원으로 나누어 편성하였다는 점에서는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통치조직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법학의 고유한 주제이지만, 국가의 통치조직은 정치학에서 다루는 고유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헌법과 국가기관' 단원은 법학과 정치학의 통합 단원으로 볼 수 있다.

3. 중등학교 '사회' 과목의 교육 내용이 변화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전반적인 변화는 공통과정 단축으로 인해 교육내용을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2007 공통과정 중등학교 '사회' 과목과 2009 공통과정 중등학교 '사회' 과목의 내용체계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교육과정의 개정되면서 단원명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성취기준이 감소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성취기준의 수가 직접적으로 교육내용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성취기준의 추상성 정도에 따라 선정되어야 할 교육내용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성취기준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육과정의 대강화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취기준을 기술할 경우에는 성취기준의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육내용이 축소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성취기준에 내용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경우에 교육내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성취기준의 감소로 인해 중등학교 공통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교육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개인과 사회생활' 단원을 사례로 공통과정의 성취기준을 살펴보았다(<표 6>)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취기준에 포함된 교육내용 요소를 비교하면 2007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요소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요소가 축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내용의 축소와 관련하여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포함되어 있던 교육내용 중에서 차이, 차별, 사회불평 등에 관련된 내용요소는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편성은 제한된 수업시수와 총론의 방향을 반영하기 위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표 6> ‘개인과 사회생활’ 단원의 성취기준과 내용요소

교육과정	2007 개정 사회과교육과정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및 사회화 의 의미를 이해한다. ② 자아정체성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됨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③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의 유형을 탐색하고, 그것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석한다. ④ 사회적 관계 의 의미와 유형을 이해하고, 개인과 집단 의 바람직한 역할을 탐색한다. ⑤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차별 현상을 이해한다. ⑥ 사회불평등 현상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① 사회화 의 의미와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기의 특징 을 탐구한다. ② 사회적 지위와 역할 의 의미를 이해하고 역할갈등 의 특징을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③ 사회집단 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집단의 특징을 탐구한다.
내용요소	사회화, 자아정체성,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 사회집단, 차이/차별, 사회적불평등	사회화, 청소년의 특징, 사회적 지위, 역할, 역할갈등, 사회집단

교육내용 축소는 범위와 깊이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사회화’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사회화에 관한 교육내용에는 사회화의 의미, 사회화 기능, 사회화 기관, 사회화 유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교육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다룰 것인가를 선정하는 것과 ‘사회화’ 개념을 선정할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의 선택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다른 두 접근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사회학에 관련된 내용요소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이런 현상은 사회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학, 법학, 경제학 등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표 7>~<표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7> 중등학교 ‘사회’ 과목의 내용요소 비교(사회문화 영역)

내용요소	2007개정			2009개정	내용요소	2007개정			2009개정
	7	9	10	중1~중3		7	9	10	중1~중3
사회화	○			○	사회문제			○	○
지위·역할				○	지속가능발전				○
사회적 상호작용	○				문화의 의미	○			○
사회집단	○			○	문화 속성/특징	○			○
사회적 관계	○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			
사회불평등	○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
자아정체성	○				대중문화	○			○
차이와 차별	○				대중매체	○			○
현대사회변동의 양상	○			○	문화창조	○			○
한국사회변동	○			○	문화계승	○			○
사회갈등	○				문화변동			○	
남북분단과 통일				○	문화갈등			○	

*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하여 다루어지는 내용요소에 차이가 있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문화상대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총체론적 관점 등이,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에는 문화상대주의, 문화사대주의, 자문화중심주의 등이 포함된다. 2007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에 문화상대주의 등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를 다루고 있으나,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반영하고자 두 요소를 구분하여 표시하였음.

<표 8> 중등학교 '사회' 과목의 내용요소 비교(법과 정치 영역)

내용요소	2007개정			2009개정	내용요소	2007개정			2009개정
	7	9	10	중1~중3		7	9	10	중1~중3
법의 의미	○			○	정치의 개념과 의의		○		○
법의 기능	○		○	○	정치권력의 변화과정		○		
법의 분류				○	민주정치의 전개과정		○		○
사법제도	○			○	민주주의의 이념		○		○
법의식	○		○		현대민주정치의 원리		○		○
법적 쟁점과 합리적 해결	○				갈등의 해결과 정치과정		○		○
인권과 헌법의 관계	○			○	정치주체의 역할		○	○	○
헌법의 기본원리/보호수단	○				정치과정에서 시민 권리/의무		○		
기본권의 유형	○				정치참여방법		○	○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	정부형태	○			○
국가의 통치조직과 기능			○	○	지방자치제도				○
권익침해의 법적 구제방안			○	○	정치적 쟁점과 해결방안			○	
사법과정의 국민참여방법			○		국제사회와 국제관계				○
사법관련 국가기관				○	외교정책				○
인권/사회정의의 쟁점			○		국제문제(독도/동북공정)				○

<표 9> 중등학교 '사회' 과목의 내용요소 비교(경제 영역)

내용요소	2007개정			2009개정	내용요소	2007개정			2009개정
	7	9	10	중1~중3		7	9	10	중1~중3
희소성		○		○	노동자의 경제적 역할		○		
합리적 선택		○		○	정부의 경제적 역할		○		
분업과 교환		○			신용관리		○		
경제체제의 의미와 특징		○			자산관리		○		○
수요와 공급의 의미		○		○	경제성장의 의미			○	○
수요와 공급의 결정요인		○		○	경제성장과 삶의 질			○	
시장의 형태				○	물가와 실업			○	○
시장균형가격의 결정원리		○		○	재정정책			○	○
가격의 기능		○		○	금융정책			○	○
시장의 기능과 시장실패		○			국제거래 의미			○	○
정부의 기능과 정부실패		○			국제거래의 발생요인			○	○
한국 시장경제체제의 특징		○			국제수지			○	○
소비자의 경제적 역할		○			환율			○	○
기업의 경제적 역할		○			국제경제협력/세계화			○	○

IV. '사회' 과목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의 평가

지금까지 2009 교육과정 총론의 방향을 반영하여 개정된 2009 중등학교 '사회' 과목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사회과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질까? IV 장에서는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화의 의미를 사회과교육의 목표와 본질 등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기에는 일반사회 내용요소가 부족하다.

사회과교육의 본질과 목표에 비추어 공통과정 단축으로 인한 사회과교육내용의 축소형 통합의 방향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과교육의 목표를 살펴보았다.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교과이다. 사회과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민주 시민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사회 정의의 실현 등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은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의 획득, 분석, 조직, 활용 능력이나 탐구능력이나 사회 참여 능력 등을 함양하기에 적합할까? 이 물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하려면 한국의 학생들이 배워야만 하는 ‘사회’ 과목의 교육내용으로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읽고 분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공통과정이 단축되고, 고등학교 전 과정이 선택교육과정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이수하는 사회과 과목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신문이나 인터넷은 시민들이 정보를 획득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중등학교 ‘사회’ 과목에 편성된 교육내용으로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읽고 분석하는 능력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종합일간지의 신문 기사를 검색하였다.

한은 산하 경제연구원 주장--부동산값 억제 지속 추진 필요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면 개인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포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산하 **경제연구원**은 10일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보고서에서 “소득분배 등 각종 사회지표 개선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책과 제도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저산 보유를 통해 창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 불균형이 악화하는 **결함**이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지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 제도를 한결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진기 부연구위원은 ‘공공재, 기회비용 그리고 강원도’라는 제목의 정책메모 제101호에서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본격 추진된 5년 단위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어 현재 2만달러가 넘는 커다란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다”면서 “그러나 발전과정에서 동서 간 그리고 남북 간 불균형이 일어났고 강원도는 2중 불균형 발전의 곪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의 평균소득은 약 1만7000달러로 전국 평균 약 2만 달러의 8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부 지역은 1만달러도 못 미치는 등 강원도는 **시장실패**와 부적절한 정부 개입의 직접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GRDP 역시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1인당 GRDP는 2186만원이지만 강원도는 1883만원으로 평

(출처: 세계일보, 2012.01.11)

(출처: 조선일보, 2011. 11. 24)

[그림 1]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 분석을 위해서는 풍부한 사회과학 지식이 필요하다.

신문 기사에는 사회불평등, 경제성장, 삶의 질, 소득불균형, 소득세, 공공재, 기회비용, 시장실패,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총생산) 등의 사회과학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1]). 이것은 시민들이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 지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신문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사회불평등, 시장실패, 삶의 질 등의 내용요소는 2007 개정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교육내용의 축소·통합의 방향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배제되었다(<표 7>, <표 9> 참조).

신문기사에 포함된 용어의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정

확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축소와 통합의 결과물인 2009 중등학교 '사회' 과목에 포함된 교육내용 요소는 사회과의 목표를 성취하기에 부족하다고 본다. 이것은 교육내용 적정화와 공통과정 단축을 위하여 교육내용을 통합하려던 시도가 사회과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에 적합하였는지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세계인을 육성하기에도 일반사회 내용요소가 부족하다.

세계인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과 교육 목표에 세계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국제정치와 국제법 등의 교육 내용이 사회과 교육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세계인은 교육과정 문서에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명시하는데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갖추어야 할 지식을 교육 내용 요소로 다룰 때에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국제 사회와 국제정치' 단원을 설정하고 독도문제, 동북공정과 같은 국가가 간 갈등 문제를 국제 관계 속에서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성취기준을 설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9 개정 중등학교 '사회' 과목에 국제법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독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의 경우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공민을 사회과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 국제정치와 국제법에 관련된 교육내용이 지속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고 있다.

3. 고등학교 교육내용 통합이 교육내용 적정화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거시경제와 국제경제 영역은 고등학교에 편성되어 있었다(<표 9>참조). 고등학교에서 거시경제와 국제경제 영역을 학습하도록 편성되어 있었던 것은 2007 개정 교육과정만의 독특한 특징에 해당되기 보다는 일본이나 중국 교육과정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강운선, 2010b).

세 나라 모두 고등학교 과정에 거시경제와 국제경제 영역의 교육 내용이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거시경제와 국제경제 영역의 교육 내용이 고등학교에서 학습하기에 보다 적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성찰없이 공통과정의 단축으로 고등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교육내용이 중학교 과정으로 통합되었다. 이것은 교육내용의 적정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육내용 적정화의 결정 요인에는 수업시수 대비 학습 양과 더불어 주제가 도입되는 학년, 주제가 다루어지는 기간, 그리고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친숙도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교육내용의 양을 축소한다고 할지라도 학습자들의 발달단계보다 높은 단계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경우에 학생들은 교육내용을 어렵다고 느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사회 과목의 내용이 어렵다고 지적한다면, 사회적 요구와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사회 교육내용을 또 줄여야 할 것인가?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어렵다거나 많다고 느낄 때에 그 이유를 학습 양의 요인에만 한정하여 접근하지 말고 당연히 배워야 할 내용을 가르치는데 수업 시간이 적게 배정된 것은 아닌지, 학년 편성이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운선(2010a). 2007 개정 사회과 교육 내용 적정화 판단의 양적 근거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의 탄력적 운영. 2010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집. 47-56.
- 강운선(2010b).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과정 기간 단축의 타당성 평가: 한·중·일 사회과 교육과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2(4). 1-29.
- 강운선(2010c). 한·일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비교: 내용 체계와 정치와 법 영역의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18. 453-480
- 강운선(2010d). 2007 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2010 개정 텍사스 주 교육과정의 비교 분석: 일반사회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7(4). 1-17.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개정 사회과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10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1). 「사회과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회과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7-79호」. 교육인적자원부.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위원회(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위원회, 연구 자료 ORM 2010-11.